

동아일보 기사 수, 단수, 내용을 통한 쓰레기 문제의 중요도 [변천분석: 1920-1990년사이]

The Changes of the Garbage Problem Importance through the Number of Articles, Column Headings and Contents of Dong A Ilbo

신경주*
Shin, Kyung Joo

Abstract

Desolation of the earth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is rising as a world wide problem and concern. At this point, we need to look into the problem and set up a direction for the future. In order to reveal the change of garbage problems in our country's civil life, a researcher analyzed 369 garbage related articles from the first edition of Dong A Ilbo up to 1990.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data from garbage related articles. It is organized by age and era(10 years). 1) Number of articles by year rises in 1921 after first publication of garbage problem article. In the 1930s, the number of articles drastically increased in 1937. From then on, the number of articles declined until early 1970s but rises again from 1978. 2) Yearly change in articles was a mere 1.2 columns in between 1920 to 1960. In the 1970's, relative importance increased and over 5 columns were published. Articles rose in the 1980s with over 3.4 and 5 columns. 3)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can be classified into cleaning problems, collecting and transporting, expenses, and recycling. Garbage disposal problems continued until the 1970s. Regarding garbage collecting problems, form of collecting container and location was discussed. Laws were revised after garbage disposal areas were discussed in the 1920s. Expenses were levied from the 1930s and rising cost and double charge problems were subjected. Garbage recycling began in the 1920s and continued until 1900s.

keyword: Ecological Housing, garbage problems, Environmental pollution, Sloping Site

I. 서 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황폐화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분진, 쓰레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처리장의 수용능력 감소,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쓰레기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도시폐기물(1977), 농촌쓰레기(김경량, 1988, 이성호, 1990), 쓰레기 수거료(김혜경, 1991, 이정전 1990), 가정쓰레기의 현황, 처리행태, 자원화 방안(변수희·계선자, 1995, 한경미, 1999), 쓰레기 종량제, 재생제품 등에 대한 소비

자 의식 조사(김연화, 1995, 전윤숙·이희숙, 1998),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의식, 방안 (노영화·강성진, 1991, 노병창, 1995, 한경미, 1999),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강성진, 1993, 소비자 시민의 모임, 1994, 계승희·문현경, 1996), 의류의 재활용 관련(박화순·서영숙, 1998), 주거환경 문제 속에서 쓰레기를 본 연구(신경주, 1991, 신경주·이영심, 1992) 등으로 구분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련 연구는 도시 쓰레기와 농촌 쓰레기 처리문제 및 재활용과 의식에 중심을 둔 단편적인 연구로써 선행연구들은 그간 쓰레기 문제 가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연구자는 일간지의 쓰레기¹⁾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하여 일간지에서 다른 연대별 쓰레기문제의 중요도와 기

1) 쓰레기란 현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연구 당시에는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후자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등'을 말한다고 제시되어 본 연구자는 이에 준하였다(환경처).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이 논문은 1999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사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1920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기사부터 1990년 사이의 쓰레기 관련 기사로 분석내용은 관련기사의 수, 기사단수, 기사의 내용변화로 한정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시대별 중요도를 보고, 기사의 내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자료분석법에 의하였다. 분석자료는 1920년부터 1990년 사이의 동아일보 기사 중 쓰레기 관련 기사 369개를 이용하였다.

동아일보를 선택한 이유는 1920년에 창간 후 일제에 의한 강제정간 시기(1941년-1945년)를 제외하고는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유일한 신문으로, 필자가 이 자료로 우리나라 주거환경 문제를 계속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1920년에서 1962년 사이는 1개월 단위로 축소 제작된 기사 색인집 I-VIII을 이용하였으며, 1963년-1990년 사이는 한양대학교와 국회도서관에서 1-2개월 단위로 제본된 300여권의 신문 총 213445호를 본인과 대학원생 3인이 직접 확인하였다²⁾.

자료분석은 연도별 및 10년 단위의 총 기사 수, 기사 단수 및 기사내용의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기사 내용의 변화는 주거환경 관련 기사의 주제분류 및 주제별로 포함된 내용(신경주, 1991)을 참고로 재분류하여 1) 청소문제, 2) 수거와 운반, 3) 처리 장소, 4) 수거경비, 5) 재활용으로 구분정리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도별 기사수의 변화

분석에 사용한 기사 수는 총 369건으로 연도별 및 연대별로 구분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동아일보 창간호부터 1990년의 70년간 (정간시기(1941년-1945년 제외) 기사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20년 창간된 해부터 쓰레기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 시작하여, 1922년과 1923년에 기사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사화 되다가, 1934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6년과 1937년에는 기사수가 폭증하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1948년을 제외하고는 쓰

표 1 쓰레기 기사수와, 단수의 연도 및 연대별 변화추이

1년단위	기사수		기사단수		기사수 1년단위
	10년단위	1·2단	3·4단	5단이상	
1920	2		2	0	0
21	7		7	0	0
22	16		16	0	0
23	15		15	0	0
24	4	70	4	0	0
25	7	(19.0)	7	0	0
26	5		5	0	0
27	7		7	0	0
28	7		7	0	0
29	0		0	0	0
1930	0		0	0	0
31	2		2	0	0
32	8		8	0	0
33	4		3	1	0
34	15	115	4	11	0
35	15	(31.1)	13	2	0
36	28		13	15	0
37	30		21	5	4
38	9		3	5	1
39	4		2	2	0
1940	4		2	2	
정간시자~~~~~					
1946	2		1	1	0
47	2	20	1	1	0
48	9	(5.4)	8	1	0
49	3		3	0	0
1950	1		1	0	0
51	1		1	0	0
52	0		0	0	0
53	2		1	0	0
54	5	15	5	0	0
55	2	(4.1)	2	1	0
56	0		0	0	0
57	3		2	0	1
58	0		1	0	0
59	1		1	0	1
1960	2		1	1	0
61	8		6	2	0
62	7		5	2	0
63	0		0	0	0
64	0	18	0	0	0
65	0	(4.9)	0	0	0
66	0		0	0	0
67	1		0	1	0
68	0		0	0	0
69	0		0	0	0
1970	1		0	1	0
71	1		1	0	0
72	1		1	0	0
73	2		1	0	1
74	5	36	1	3	1
75	1	(9.7)	1	0	0
76	4		1	3	0
77	2		0	0	2
78	14		4	9	1
79	5		1	4	0
1980	3		0	3	0
81	6		2	3	1
82	7		1	5	1
83	2		0	1	1
84	2	45	0	0	2
85	2	(12.2)	0	1	1
86	3		0	3	0
87	5		0	3	2
88	6		2	3	1
89	9		3	4	2
1990	50	50(13.6)	1	26	23
합계(%)	369	369(100)	221	128	47

2) 1990년 이후에는 종래의 4~8면에서 32면, 48면 등 면수 급증으로 기사 수, 기사비중 등을 이전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졌다. 앞으로는 1990년 이후의 10년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례기 관련 기사가 대체적으로 저조하였으며 1961년과 1962년에 다소 많았으며, 1978년부터는 기사수가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정한 수가 기사화 되고 있다. 1990년에는 기사가 폭증하였다. 신문에서 기사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신문의 역할과 당시의 사회상을 감안 할 때 그 만큼 쓰레기가 시민에게 중요한 문제이었음을 반영한다. 이는 쓰레기 문제의 초반은 주로 분뇨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1950년대 초반에 관에 의해서 주택에 변소가 강제로 설치되면서 이 문제 가 줄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³⁾.

1962년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바꿈한 시기이었으며, 1980년에는 환경청을 신설하여 환경문제 전담 부서가 생긴 시기이었고, 1990년은 이를 환경부로 기구를 확대 개편한 시기로 이러한 전후에 환경 문제에의 관심증가와 맞물려서 쓰레기 기사수도 증가하였다 해석된다.

기사수의 연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1920년 대에는 평균 7.0건(전반 8.8건, 후반 5.2건), 1930년대에는 11.5건(전반 5.8건, 후반 17.2건)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쓰레기 관련 기사가 많았다. 1920년대는 쓰레기 문제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 시기이었으며, 1930년대에는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전개와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레기에 대한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1940년대에 2.0건, 1950년대에 1.5건, 1960년대 1.8건 등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물론 이 시기는 동아일보의 정간시기인 1941에서 44년까지와 6. 25사변으로 인해 1950년대 초반에 쓰레기에 대한 기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분뇨 쓰레기가 변소의 정착으로 일단락 되었으며 아직 공업국으로 돌입하지 않아서 생활쓰레기 문제 가 부각되기 전 단계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70년대는 평균 3.6건(전반 2.0건, 후반 5.2건), 1980년대는 평균 4.5건(전반 4.0건, 후반 5.0건)으로 1970년 대 후반부터 다시 기사수가 증가되었으며 1990년에 폭증하여 1년 동안에만 50건의 기사가 실렸다. 1980 연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의 전개와 폭증된 쓰레기 양으로 인하여 쓰레기 매립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이 문제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리게 되었기 때문이며, 1990년은 환경문제 자체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나라안으로는 환경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그간 매립지로 이용해 온 난지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다른 매립지를 찾아야하는 문제와 맞물

려서 외국의 쓰레기 처리 사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소개가 있었다. 또 신문면이 증가하여 그간의 4면에서 8면, 16면을 거쳐서 많은 날은 50면을 넘는 등 일정하지 않게 바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정리하면 1920년 처음 쓰레기 문제가 기사화 되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쓰레기 관련 기사가 많았으며, 그 후는 1970년대 초반까지 저조하다가 1978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를 거쳐서 1990년대에는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대별 기사수의 변화를 통하여 1990년대에 접근하면서 쓰레기 문제의 중요도가 더욱 심화함이 확인되었다.

2. 연도별 기사 단수의 변화

신문사에서 기사 단수를 정할 때 그 기사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가장 중요한 기사는 5단, 중요도가 낮은 기사는 1단으로 정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있다. 필자는 이점에 착안하여 기사의 단수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연대별 쓰레기 관련 기사의 중요도를 가름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관련 기사의 단수를 살펴보면 1920년대는 1단과 2단 기사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거나 1단 기사의 비중이 더 높았다.

그 후 1933년에 처음 3단 기사가 나타난 후 1937년에는 5단 이상의 기사가 처음 나타나는데 갑자기 비중 높은 기사가 4회나 게재된다. 이는 이 시점에서 시민의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1938년에 다시 5단 기사가 한번 더 나타난 후 1940년대를 지나 1950년대 후반까지 주로 1,2단 기사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추세가 계속되었다. 1954년에 3,4단 기사가 1번 실린 것을 제외하고는 쓰레기와 관련 관심이 저조하였다. 그 후 1957년에 5단 기사가 다시 실리고 1959년에도 5단 기사가 있었으나 그 뿐 다시 1960년대는 5단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1960년대는 3,4단의 기사가 한두 번씩 실린 정도로 그 관심이 극히 저조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쓰레기 관련 문제에 관심이 일기 시작하여 초반과 중반에 각각 5단 기사가 실렸고 3,4단 기사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즉 이 시기의 36개의 쓰레기 관련 기사 중 1,2단이 30.6%, 3,4단이 55.5%, 5단 이상이 13.9%로 이 시기는 3,4단 기사가 주류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쓰레기와 관련 관심이 1970년 대 보다도 더 고조되는 듯 계속적으로 5단 이상 기사가 실리고 3,4단의 기사양도 대폭 증가하였다. 즉 이 시기의 45개의 쓰레기 관련 기사 중 1,2단이 17.8%, 3,4단이 57.8%, 5단 이상이 24.4%로 1970년대보다도 5단

3) 신경주(1994), 우리나라 주거환경 문제의 변천에 관한 자료, 한국생활과학연구, 제12집.

이상의 기사 비중이 확연히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를 정리하면 1,2단 기사는 1920년과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그 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4단 기사는 1930년대 초반에 나타나서 40년대까지 계속되며, 그 후는 1980년대에 다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5단 이상 기사는 30년대 후반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그 후는 1970년대 후반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여 1980년에 다소 증가하여 1990년대는 4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별 기사단수의 변화를 통하여 쓰레기 문제의 중요도는 1990년대로 가까워 올수록 더욱 심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기사 내용의 분석

쓰레기 관련 기사는 그 내용상 공통점에 따라 연대별로 1)청소 문제, 2)수거와 운반, 3)처리장, 4)수거 경비, 5)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⁴⁾(표 2). 그 외의 기사는 시대별 계속 관찰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 청소문제

쓰레기청소에 관한 기사는 1920~1990년까지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내용이다. 그 주된 내용은 쓰레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물이 적치됨에 따른 보건 위생 문제였다.

쓰레기 청소에 대한 기사의 시작은 오물청소에서 비롯되었다. “위생과에 비난”(1921. 7. 1자)에서는 오물소재를 위생과가 맡아서 경영하게 되면서 인부를 줄여서 쓰레기의 청소 횟수가 줄어 거리가 너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함경남도 원산부의 주민들이 위생과를 비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시기의 오물 적체의 주원인은 위생계의 태만함과 청소시설의 부족, 청부제 오물 청소에 따른 폐단 등으로 집약되며 이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았다. 1920년대에는 쓰레기 청소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써 1922년 9월 26일의 오예물 회의를 시작으로 「오예사업 조사회」(1922. 10. 13)를 구성하여, 10월 26일에는 「오물처리 위원회」를 열어 쓰레기 청소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30년대도 분뇨 청소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았는데 변소청소가 잘 안되어 오물이 적체됨에 따른 보건위생문제이었다. 1935년에는 총독부 위생과에서 부령으로 ‘도시오물 청소령’을 제정한다. 그

표 2. 쓰레기 기사내용의 연대별 변화추이

연대	청소문제	수거운반	처리장	수거경비 (판세·경비)	재활용
1920	28	11	16	10	5
1930	65	6	5	33	6
1940	16	2	1	1	0
1950	8	1	1	2	3
1960	9	7	1	1	0
1970	17	8	5	4	2
1980	19	7	14	4	1
1990	15	9	21	2	3
합계(%)	177(48.0)	51(13.8)	64(13.8)	57(15.5)	20(5.4)

후 1937년 10월 1일에는 ‘오물 소제령’이 발표되는데 이 시기는 정부차원에서 쓰레기 청소에 대해 국민을 계몽시키는데 주력하였으나 ‘청소령 실시’ 이후 종전보다 오히려 더 태만하다’(25자)는 기사가 나타났다. 함흥부의 경우 시설을 확충하여 대대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종전보다 더 태만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일본인에 의한 총독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 조선인이 협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추된다. 1939년에는 인천지역의 오물청소를 부직영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40년 대도 마찬가지였음을 ‘세종로에 오줌바다. 오물청소는 누가?’(1948. 10. 12자)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쓰레기 청소하라-윤 시장이 각 기관에 명령’(1948. 12. 17자)에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쓰레기 청소 운동을 본격화시키기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1950년대는 전쟁으로 청소 문제가 거론되지 않다가 다시 ‘종로일대 청소’(1962. 8. 5자) 기사가 등장한다. 공무원들이 아침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종로 일대의 뒷골목을 청소한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매달 일회씩 조기 청소가 계속 되는데 이러한 정부 차원의 청소운동은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1980년대 이후 도시의 쓰레기 청소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리산『쓰레기 증증』’(1985. 7. 14자)을 시작으로 소백산 계룡산 등 우리나라의 명산이 등산객들이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로 뒤덮인다는 기사와 수거인원의 절대부족으로 제 때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 시작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산업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에 비해 그 양이 적을지 모르나 더 중요한 환경오염의 요인이다. 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하여 각종 고분자 물질(플라스틱, PVC 등)과 유독 금속류(수은, 카드뮴 등)를 원료로 하는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이 물질들은 자연 분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연성 물질에 비하여 독성이 높다. 또 배출량

4) 신경주(1991)는 일간지를 통해 본 주거환경 문제의 연구(I)에서 70년간의 주거환경 문제 변천의 시대구분을 초보적문제기(1920년-1938년), 무의식기(1940년-1968년), 관심고조기(1969년-1989년), 관심집중기(1989년-1990년)로 구분하였다. 또 기사의 주제분류에서는 오물(오물, 분뇨처리장, 오물수거경비, 오물비료이용, 분뇨넘침, 변소 위생), 쓰레기(산, 도심, 농촌의 쓰레기,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수거·수거료·운반방식,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재활용, 산업쓰레기, 도심청소) 등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참고로 70년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항목으로 끓어서 분류하였다.

도 세계 각국이 산업화됨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과 비슷한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방용호, 1994). 이에 즈음하여 1986년 오물 청소법이 폐지(12. 31일) 되고 폐기물 관리법이 공포된다. ‘국토 망치는 산업쓰레기’(1987. 3. 6자)에서는 위독성 산업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가 단속을 피해 주택가 부근 등에 함부로 버려지고 있어 공해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였다. 1990년대에는 ‘핵폐기물 얼마나 위험한가’(11. 10자)란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방사성 폐기물의 위해성을 놓고 정부관련 연구 기관과 국민들의 인식이 서로 달라 폐기물 처리 사업이 난항에 처해있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영구 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이 스웨덴 한 곳 뿐인데다 방사능을 인위적으로 없앨 수 없다는 점등이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1920년대의 오물쓰레기에서 1970년대의 산업 폐기물을 거쳐서 1980년대의 핵폐기물까지 청소대상의 내용물이 변화를 보이는데, 점차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청소대상지역이 배출량이 많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및 전국 피서지의 쓰레기 적체 문제 등으로 그 방향이 확산되는 양상도 보였다.

2) 수거와 운반

① 수집 용기

하수도 설비가 없었던 당시 쓰레기의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의 분뇨 운반을 위해 분뇨통을 감출 수 있는 큰 궤를 고안하였다(1921. 11. 12자). 그 후 종래의 거름운 반용 마차의 결점을 보완한 탱크식 마차를 대소변을 도심 밖으로 운반하는데 이용하고자 계획된다(1924. 1. 22자). 또 1925년에는 ‘지하관으로 분뇨 배출-시외 아현리에서 마포까지 분뇨를 토관으로 운반하게 해-’(7. 9자)라는 기사가 나타났다. 즉 일부지역이지만 관을 이용하여 사대문 밖으로 대소변이 자동적으로 운반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물 쓰레기와는 별도로 가정에서의 쓰레기 수거용기도 있었는데, 이는 위생상의 이유로 집밖에 놓여져 있었다. 1923년에는 ‘쓰레기통을 무료로 수선(6. 6자)’란 기사를 통하여 쓰레기통이 파손되어 거리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쓰레기통 수리 인원을 파견하여 무료로 수선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는 이 통이 없는 집도 많았을 듯 재료를 구해두면 무료로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37년에는 쓰레기통을 집안에 들여놓게 하여 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한편 같은 해(9. 5자) ‘분뇨 지하 수송 시설-돈암재와 무학재를 넘

어서-’란 기사를 통하여 집 쓰레기통을 정비하는 동안도 꾸준히 분뇨 운반을 위한 지하 토관 설비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분뇨 처리에 새 방안’(1950. 4. 14자)에서는 분뇨 수거를 위하여 시외로부터 들어오는 우마차 사용을 일체 금지하게 되었다. 우마차로 분뇨를 운반 할 때는 운반 용기가 조잡하여 길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으로 이의 방지를 위함으로 볼 수 있지만 그간 꾸준히 해 온 지하 토관 설비가 어느 정도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 후 1961년 흡인식 분뇨 차가 서울시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1975년 서울시의 분뇨 수거율이 77%선으로 변두리나 고지대 거주자들은 기계를 이용한 흡인식 분뇨차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민간업자에게 돈을 주고 재래식으로 펴내거나 일부 외진 곳에 몰래 버리는 등 비위생적인 처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1980년대에는 대문밖에 시멘트 등으로 만들어 두었던 쓰레기통을 없애기로 하였고, 쓰레기 수거 방식을 분리수거로 바꿔 쓰레기 종류에 따라 각각 색깔이 다른 비닐에 수집하여 수거해감에 따라 대문 안이나 대문 밖의 큰 쓰레기통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집 안에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두게 되었다.

② 수거와 운반

쓰레기량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쓰레기의 수거는 그 발생량의 증가 추세에 못 미치는 수거인원과 장비로 수거 문제는 192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계속되고 있었다.

1920년대에는 쓰레기 운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1921년 경성부 위생계에서는 경성의 큰 문제인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 3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성의 중앙을 흐르는 청계천을 관통하는 쓰레기 운반 전용 철도를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였다.

1923년에는 종래의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사용하던 마차를 자동차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다. ‘위생 인부 감소’(1923. 8. 9자) 기사에 의하면 오랜 장마로 시내의 쓰레기 등 더러운 물건이 거리에 언덕처럼 쌓여 그 책임자인 경성부 위생과에서는 크게 두통을 앓고 있다고 하였다. 위생계에서는 십 여일 동안 찬 오물을 이삼일 안에 소제할 작정으로 마차와 인부를 종전보다 더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위생인부들은 날이 너무 더워 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어 마차 164대와 인부 37명만이 참여하여 수거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였다.

서울시는 1972년부터 쓰레기 수거장비를 보강하여 현재의 쓰레기 수거율 88.9%를 96.5%로 올릴 계획(1971)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2년 2월 7일 ‘올해의 오물 처리책 부재’에서는 분뇨 및 쓰레기 수거 장비 증강과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구증가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분뇨쓰레기 배출량

을 제대로 감당치 못해 올해 청소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 같다고 하였다.

1974년(서울시)에는 청소원들이 가정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변두리 폐기장으로 가져가기 전에 일단 큰길이나 골목에 아무렇게나 쌓아놓아 공해의 요인이 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을 근대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란 기사가 실렸다.

1976년(3. 27자)에는 서울시내 고지대에 쓰레기차가 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다 못 한 주민들이 무허가 수거업자를 통해 쓰레기를 치우며 매달 50원씩의 수수료를 내기도 한다는 기사로 쓰레기 운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978년에는 서울시 쓰레기 운반의 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원들의 임금이 최저 기본 생활급에 훨씬 못미쳐 갈수록 이직율이 높아져 운반체계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고했다.

같은 해에 서울시내 각 동의 20%에 해당하는 지역의 쓰레기 수거 방식이 문전 타 종식으로 바뀌었고 1차로 적용 대상이 된 각 지역 일반 가정에서는 문 밖 쓰레기 수레차까지 쓰레기를 운반하느라 애먹는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편 가정주부들은 일선 구청에서 반상회를 통해 쓰레기 버리는 비닐봉지를 이용하도록 했으나 막상 구하려면 알선해 주지 않아 불편이 많다고 하였다.

1981년(12월부터)에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재활용과 토지오염방지를 위해 분리수거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1982년 (7월)에는 분리수거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 1990년에는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그 호응도는 높았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12월 27일 서울시내 및 수도권 거주 주부 544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폐기물 처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정도(51.5%)의 주부가 음식물 찌꺼기를 별도로 봉지에 담아 버린다고 응답했지만 나머지는 다른 쓰레기와 구별 없이 함께 버린다고 응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처리장 문제

최근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처리장 문제는 1920년부터 이미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는 주로 주택가에 인접한 분뇨처리장에 대한 주민의 반발로 1922년 왕십리 주민의 분뇨처리장 이전에 관한 진정을 시작으로 1923년(5. 28자)에는 ‘부산 진개장 문제’로 진개장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으며 진개장으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주도 이를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1926년에는 오물 처분지 신설로 고양군 송인면 민의 반대가 일어났으며, ‘마포일대 주민의 분뇨탱크 설치 반대(1926년), 원산 분뇨문제로 인한 와우리 주민 대회(1928년), 주택가 분뇨사태로 동부 진성주민들의 농성(1939)으로 이어지면서 오물 처분장으로 신설되거나 이전되는 곳의 주민들의 설치반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처리장 문제도 1936년(7. 1자) 나타나는데 ‘늘어나느니 오물뿐, 부(府)당국도 처치에 두통’이라는 기사가 보였다. 그 후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잠잠하다가 1960년(10. 14자) ‘시민보건 좀먹는 분뇨탱크 주택지대 한복판에 방치’ 기사에서는 일제 시대 설치된 분뇨탱크가 일반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인근 서강, 밤섬 주민들의 보건에 큰 위협이 되므로 신수동 주민들이 이를 교외로 옮겨줄 것을 진정하고 있었다.

사실상 이때부터 1980년대 말까지 분뇨 처리 문제 가 거론되지 않는 데 그간은 성산동 서부 분뇨처리장, 중랑천변 동부 분뇨처리장과 경기도 고양·군의 북부 분뇨처리장에서 맡아서 분뇨에 고온고압을 가해서 유해독소를 산화시켜 50 m 높이의 굴뚝으로 배출시켜서 탈수, 탈취하고 남은 고체덩어리를 쓰레기 처리장에 매립하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을 통해 강으로 방류해 왔었다.

그 후 고도 성장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서울의 골칫덩이 쓰레기’ (1980. 5. 1자)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총 513만톤이며 이 중 70% 이상을 난지도 매립장에 갖다 버리고 있는데 연면적 89만평의 난지도 매립장도 해마다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8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1982년(3. 29자)에는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된 지 5년이 지난 그 당시의 매립율이 45%정도인데 쓰레기 양이 연평균 20%씩 급증하고 있어 3년 후인 1985년 말에는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므로 새로운 매립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 후 1983년에는 난지도, 강동, 강서, 도봉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키로 계획하였다. 1986년에는 매립 용량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대신한 새 매립장 물색작업에 나서 서울시 주변의 경기도 일원에 4군데 매립시설을 건설키로 했다.

한편 1988년(16년간 처리) 주민민원에 따라 성산동 서부 분뇨처리장을 1989년 폐쇄하기로 결정하므로 이 이후의 분뇨처리는 동부와 북부가 전담하게 되었다.

그간 서울시내 생활 쓰레기는 난지도에 버려지고 있었는데 극심한 악취와 악성폐수 유출로 일대 주변 환경

을 황폐화시켜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공해단지가 된 다. 이에 환경처는 1990년(10. 8자) '쓰레기 매립지 강 제 수용'에서 쓰레기 매립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등 의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오는 2000년부터 쓰레기 처리 방식이 현행 위생 매립에서 해안 매립으로 바뀌고, 남 해안 5개 지역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가 새로이 조성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아직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집단 이기주의와 맞물려 쓰레기 매립장소 선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문제로 남아있으며 1990년대는 공해폐기물의 불법매립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4) 수거 경비

쓰레기 수거경비 문제에 있어서는 분뇨 급취료를 들 러싼 일반 부민과 당국간의 대립문제로 1932년(7. 28자) '분뇨료 징수-매호에 연 총 1원 30전-'에서는 분뇨료의 징수는 분뇨 중간 상인에게만 이익을 줄 뿐으로 농민과 일반 부민에게는 부담이 되어 부민의 반대가 극 심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935년 6월부터 경성부의 분뇨급취 수수료가 징수되었다. 호별세 등급에 따라 54 등까지는 매월 20전, 60등까지는 매월 15전, 61등 이하는 매월 10전으로 수수료 총액은 매월 5-6천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1937년에는 오물 소제료와 위생비를 따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중 부과를 한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평이 기사화 되었다.

1947년에는 서울시의 오물세가 개정되어 1등은 호별 세 연 1090원, 2등이상-10등까지는 연 1007원, 그 외는 연 130원으로 하였다. 1954년에는 위생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는 오물에 대해 오물 제거 경비를 정수하기 위한 호별 세 표준을 결정하는데 인상기사가 가장 많았다. 1973년에는 전년 수거요금의 50%를 인상하였고, 1975년에는 최고 150%씩 오르게 되었고, 1981년에는 22.2%, 1989년에는 30~50 % 인상방침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평균 14.4%가 인상되었다.

물가의 오름과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 쓰레기 수거 경비는 계속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은 단순히 수거료의 인상 때문이 아니라 수거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인부와 청소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무허가 민간 수거업자에게 별도의 수거료를 지불하는 등 이중 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1978년(8. 30자) '분뇨수거 민영화' 기사에서는 성 동구와 동대문구 전역의 분뇨수거 업무가 구청에서 민간업자에게로 이양되었는데 이는 청소원의 이직율이 높아지고, 수거 업무에 따른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9년 성동구의 주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간

업자들의 영수증 미발급, 고지대의 수거회피, 부당요금 징수 등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1980년대도 계속되어 민간수거와 분리수거관련 기사가 눈에 띠었다.

5) 재활용

1920년대는 비료로 이용하기 위한 분뇨의 공급 방법과 경매가격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된 시기이었다. '분뇨가 또 문제' (1921. 10. 2자)란 기사에서는 부산 부청(府廳)에서 분뇨를 일정한 사람에게 입찰함에 따라 농민들은 분뇨구입에서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1923년(7. 7자) '쓰레기를 연료로'에서는 경성부 위생계에서 날마다 수배 마차나 되는 쓰레기의 이용에 대해 종래에는 비료를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었으나 그 처치에 고심하던 중 일본 동경에서 이미 쓰레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일으키는 장치에 대해 이미 실험을 마친 단체라 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앞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공동 목욕탕 등의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하였다.

같은 해 11월 29자에서는 '일일 일천 육백 석의 대소변을 실어갈 수 있게 한다고- 경성 부의 꿈같은 계획'에서 경성부 위생계가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여 광대한 목욕장을 건설하고 대소변으로 비료를 만들어 여의도에 대동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실고 있었다. 즉 1920년대에도 분뇨와 함께 오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으며 이의 이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분뇨쟁탈-더러운 쟁탈전-'(1927. 1. 10자)에서는 경성부내의 분뇨처분의 이권을 둘러싼 암투를 설명하였으며, '경매장에 혈 전-십 수명이 사람을 쳐서 야단-'(1927. 2. 26자)에서는 평양부청의 분뇨차압문제로 분뇨를 들러싼 이권다툼이 점차 심각해져감을 설명하였다. 1933년(3. 6자) '분뇨 도거'에서는 농사철에 근교농촌에서 우마차를 끌고 와 부내의 분뇨를 훔쳐감으로 인해 거리가 오염되므로 이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1934년(5. 11자) '분뇨처분문제 재연'에서는 경성부회의 분뇨 처분문제에 대하여 중매인 제도의 철폐로 수용자의 부담감소, 일정 개인에 분뇨를 주지말고 자유 취급을 허용할 것, 마차임금의 인하 등의 요구 조건이 제시되었다. 1935년(4. 11자)에는 '회령분뇨문제, 원만히 해결' 이란 기사에서는 회령의 분뇨공급이 읍직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였으며, '나남분뇨 급취, 지명입찰제-시민의 불평도 다소완화-'(1936. 2. 18자)에서는 종래의 위임경영 방법을 폐기하고 지명입찰제로 변경하였음을 알렸다. 즉 분뇨공급 문제는 사적인 관리 방식에서 공적으로 변경되면서 다소 문제가 해결되어 갔음을 읽을 수 있었다. 1937년에는 막대한 도시의 오물을

사료와 비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기사화 되었고 1938년에는 쓰레기를 연료로 이용하여 발전(發電) 할 계획을 전하였다. 1962년(8. 28자) '오물수거 대행계약'에서는 서울시가 분뇨의 화학처리를 위한 유기비료공장 건립을 조건으로 비료 주식회사들에게 분뇨수거 대행업 계약을 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분리수거가 시작된 1980년대부터 쓰레기 재활용 계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쓰레기가 곧 돈이라는 인식이 쓰고 버리는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폐품 재활용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었다.

1990년대의 쓰레기 재활용 대책은 쓰레기 발생 후의 처리보다는 발생억제, 분리수거, 재활용 등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유도가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1. 쓰레기 관련기사는 1920년대 초에 처음 나타나 1930년대에 들어서 점차 증가하다가 1937년에 폭증하였다. 그 후 1970년대 초반까지 감소하다가 1978년에 다시 증가하여 1990년까지 계속 일정한 수가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1930년대와 1980년대에 가장 쓰레기 관련 기사 수가 많았는데 이는 1930년대는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1980년대는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의 전개와 쓰레기 매립의 가시화로 이 문제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렸었다.

이와 같이 연대별 기사수의 변화를 통하여 1990년대에 접근하면서 쓰레기 문제의 중요도가 더욱 심화함이 확인되었다.

2. 연도별 기사의 비중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대부분이 1,2단 기사로 그리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1970년대로 들어와 3,4단 기사가 주류를 이루는 한편 5단 이상의 기사가 증가되었다. 1980년대에는 1,2단 기사수가 줄고 5단 이상의 기사가 더욱 증가하여 쓰레기 기사의 비중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연대별 기사단수의 변화를 통하여 쓰레기 문제의 중요도는 1990년대로 가까워 올수록 더욱 심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청소문제, 쓰레기의 운반과 수거,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수거경비, 쓰레기 재활용으로 분류되었다.

4. 쓰레기 청소문제는 1920년부터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는데 도시쓰레기, 농어촌쓰레기, 피서지쓰레기,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그 내용과 방향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5. 쓰레기 수집용기는 1920년대 집밖에서 1930년대

집안으로 그 위치가 변경되었고, 1980년대 이후 대문 밖 시멘트 쓰레기통을 없애는 등 거리미화를 고려하게 되었다.

6. 쓰레기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거인원과 장비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역별 쓰레기 운반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980년대 이후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시범지역에서 시행되어 199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7.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매립장소 선정 문제와 집단이기주의에 부딪혀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8. 쓰레기 재활용문제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미 비료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논의되었고, 분리수거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 쓰레기 재활용 계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의 쓰레기 재활용 대책은 쓰레기 발생 후의 처리보다는 발생억제, 분리수거, 재활용 등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유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인간의 생활에는 쓰레기 문제가 없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이점을 감안한 정부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먼저 쓰레기 분리 수거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에 필요한 수거용기와 수거 공간 등이 주택계획, 나아가 도시 계획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하겠다. 또 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일반 쓰레기에서 나아가 증가하고 있는 특정폐기물 즉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의 효과적인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하겠다. 앞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의 효과적인 계몽교육 방안이 요망되었다.

참 고 문 헌

- 폐기물 발생량, 처리실태(2002) [http://www.envinews.co.kr/peki/pekil-\(1\).html](http://www.envinews.co.kr/peki/pekil-(1).html)
- 환경부(2002), <http://www.me.go.kr/www/index.html>
- 환경부(1991, 1997, 1998), 환경백서
- 한경미(1999), 주부의 가정자원 재활용 의식과 행동,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4호. pp.119-132.
- 김정숙(1990), 서울시의 쓰레기관리제도 개선방안,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27권.
- 김혜경(1991), 서울시 주택쓰레기 수거료부과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환경대학원, 석사.
- 이정전(1990), 서울시 환경보전 제도의 개선, 환경논총, 제27집.
- 신경주, 이영실(1992), 일간지를 통해 본 주거환경 문제의 연구II, 한국주거학회, 제3권 2호, pp. 89-99.
- 김경량(1988), 농촌 쓰레기 수거 처리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 이성호(1990), 농·어촌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11. 이주원(1977), 우리나라 도시폐기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논문집.
12. 변순희. 계선자(1995),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에 따른 쓰레기 처리에 관한 관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3호. pp. 88-101.
13. 박화순. 서영숙(1998), 소비자의 환경 의식과 의생활행동과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10호. pp. 79-88
14. 강성진(1998), 가정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
15. 계승희. 문현경(1996), 전국 한식제공 음식업소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량 실태파악 및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식생활문화학회지, 제11권 4호.
16. 김연화(1995), 쓰레기 종량제 및 재생품에 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쓰레기 종량제 및 재생제품에 대한 심포지엄.
17. 노병창(1998),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이해임외 4명(1998), 소비생활과 재활용(II):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제16권 4호. pp. 197-220.
19. 손영배(1997), 한국의 쓰레기 2천년사, 문지사, p 55, 59, 61, 77, 97, 99, 168, 169.
20. 폐기물관리법(1986), 12월 법률 제 3904호.
21. 환경법연구 제8권 pp. 87,88.
22. 조선왕조실록(1981), 1권-48권, 손영배, 전계서, 재인용)
23. 이병도 역(1977),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24. 이병도 역(1972), 삼국유사, 대양서적.